

CD-롬 백과사전 개발로 백과사전의 새 장 연다

전통적 종이 백과사전 사양길 접어들어...
투명한 유통과 에디터십 요구돼

백과사전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우리의 백과사전은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백과사전 출판사들은 CD-롬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한편, 출판전문가들은 덤핑판매와 같은 후진적 유통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진정한 에디터십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백과사전의 효시는 1614년 지봉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이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한국의 사물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양과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사물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천문·지리에서 경서·문장·획목·금층에 이르기까지 25부문, 182항목으로 나눠 무려 3천 435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1644년 47권 22책으로 천문·지리·관계·문학 등 25부문으로 분류 수록한 김육의 《유원총보》와 1770년 영조의 명에 따라 홍봉한 등이 100권 40책으로 간행한 《동국문헌비고》, 30권 30책으로 간행된 이익의 《성호사설》 등이 있다.

근대 백과사전의 출발은 학원사 《대백과사전》
우리나라 근대적 백과사전의 출발점은 1958년 학원사에서 간행한 6권짜리 《대백과사전》이다. 이후 학원사는 1967년 개정판 《원색 세계백과대사전(전 12권)》을 내놓는다. 한편, 동아출판사가 출간한 《동아원색 세계 대백과사전》은 동아출판사의 사운을 건 야심찬 기획으로 1982년 첫권이 출간, 1984년 전30권으로 완간됐다. 모두 19만여 항목을 4만여점의 원색사진과 함께 수록한 이 사전은 세계적인 수준에 견줘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이 사전은 이후 《두산세계대백과사전》으로 탈바꿈한다.

동서문화사가 1997년 총 31권으로 완간한 《한국 세계 대백과사전》도 우리 백과사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전으로 근대사와 관련된 항목을 대거 포함했으며, 해방이후 좌익으로 몰려 소외됐던 민족주의자들에 관한 항목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평가했다.

백과사전의 대명사인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도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에서 1988년에 첫 출간한 이래 1994년 총 27권으로 완간했다. 이 사전은 영문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 관련 항목을 30%가량 덧붙인 것이다.

우리 백과사전사에 기록될 기념비적인 백과사전으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민족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해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기획으로 1980년부터 11년 동안의 작업 끝에 결실을 본 이 사전은 총 27권에 6만 5천 항목을 담고 있다. 이 사전은 원고분량만 해도 42만장에 이르며 편찬작업에 참여한 인원만 3천여명에 이른다.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모두 아홉가지 범주로 분류해 개념, 역사,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항목의 한 측면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했다. 또한 한민족이 외국으로 진출하거나 항구적으로 이주해 이룩한 문화도 민족문화에 포함시켰다.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일에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의 경우 평균 150억원대의 비용에, 연인원 5백명에서 3천여명 가량이 동원된다. 편찬 시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동서문화사의 고정일 대표는 “백과사전은 그 나라 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말한다.

“세계에서 백과사전을 펴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 정도다. 백과사전에는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성숙한 문화사회가 아니면 백과사전을 편찬하지 못한다.”

인터넷과의 행복한 결합 꿈꾸는 백과사전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백과사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고정일 대표는 이 시절을 “속된 말로 연탄집 아들에게도 백과사전을 팔 수 있던 시절이었다. 학생을 둔 집 치고 백과사전 한질쯤 갖추지 않은 집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백과사전 시장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백과사전을 필요로 하는 독자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한국브리태니커 회사의 장호상 대표도 “몇년 전부터 백과사전의 매출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백과사전의 판매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백과사전 업계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두산동이는 《두산세계대백과사전》을 1999년 CD-롬으로 개편했으며 2000년 1월에

는 CD-롬과 인터넷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백과사전인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 엔싸이버》를 발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www.kr.yahoo.co.kr)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도 1999년 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과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한국판)》을 CD-롬에 담아 <브리태니커 CD 2000>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DELUXE>라는 타이틀로 내놨다. 또한 <브리태니커 온라인>(http://premium.britannica.co.kr)을 구축해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동서문화사도 오는 7월경 출간되는 개정판 《파스칼 세계 대백과사전》에 CD-롬을 덧붙여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같은 CD-롬 위주의 백과사전 시장 재편 변화에 대해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의 장충섭 대리는 “오히려 백과사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터넷과 전자책, 그리고 종이 백과사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전자책과 CD-롬 백과사전, 그리고 온라인 백과사전이 성공적으로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한층 완벽한 백과사전이 탄생할 것이다. 그때는 그야말로 콘텐츠의 질이 백과사전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진정한 에디터십 요구돼

흔히, 우리나라에는 “사전번역자와 사전 편집 기술자는 많아도, 진정한 의미의 에디터는 드물다”고들 한다. 출판 전문가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 가운데는 외국사전의 항목을 베껴 교묘하게 재편집해서 내놓은 경우도 많



백과사전 편찬은 엄청난 인력과 물량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전세계에서 백과사전을 펴내는 나라는 12개국 정도다. 한편, 컴퓨터와 전자책 기술의 발전은 CD-롬 백과사전이라는 새장을 열었다. 사진은 한 백과사전 출판사의 편집부.

으며, 심지어는 사전의 제목만 바꿔 출간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백과사전 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백과사전의 덤핑판매와 인터넷의 무료 공개는 다른 백과사전 출판사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투명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 최갑수 기자

“인터넷 지식 포털로 거듭난다”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장경식 이사



최근 급격한 정보화와 더불어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을 펴내고 있는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대표 장호상)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출판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출판과 온라인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콘텐츠 사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는 1999년 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과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을 CD-롬에 함께 담은 <브리태니커 CD 2000>을 출판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내용면에서도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DELUXE>를 출시했다.

“전자출판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자출판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콘텐츠는 단연 백과사전이죠. 우리는 CD-롬과 DVD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출판 분야로 방향을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식 이사(43, 콘텐츠 개발본부장)는 지금이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의 과도기라고 말한다. 영어판으로 개발되는 브리태니커의 모든 전자출판물과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한글화하고 인터넷에 기반한 종합적인 정보통신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다. 세계의 브리태니커 사이트와 연계해 방대한 지식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백과사전과 한국어판 인터넷 가이드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D-롬 백과사전의 출시와 함께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온라인>을 구축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백과사전의 가장 큰 임무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속성’과 ‘효율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죠. 우리 인터넷 사이트는 단순히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브리태니커 온라인>에서는 엄선되고 여과된 양질의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검색과 미디어 검색 등 다양한 검색법을 도입하고 영상자료를 강화했습니다.”

장이사는 전자책과 인터넷의 발달로 아무리 정보를 찾기가 쉬워졌다고는 해도 전통적인 종이 백과사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백과사전에는 독특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 몇 장의 CD-롬에 다 담아낼 수는 없죠. 예고도 말했다시피 신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정보는 언제나 종이책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온라인>은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DELUXE>를 구입한 독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백과사전의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 무료 공개는 브리태니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장이사는 설명한다. 이는 브리태니커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와 깊이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 — 최갑수 기자